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ood Use of Leisure Among the Retired Elderly in Korea*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교 수 박 미 석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Park, Mee Sok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leisure life of the retired elderly in Korea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ir leisure activity type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ir satisfaction of leisure life. This study was secondary analysis of the national data; from The Social Statistics Survey; colle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0.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of the retired elderly included watching television and doing nothing.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by sex, age, education degree, having spouse or not, having house or not, and residential area. 3)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ost effective factors of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were sex, age, having spouse or not, having house or not, residential area and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주제어(Key Words): 은퇴 노인(Retired Elderly), 여가선용(Good Use of Leisure), 여가활동유형(Type of Leisure Activity), 여가생활만족(Satisfaction of Leisure Life)

Corresponding Author: Mee Sok Park,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dong 2-ka, Yongsan-ku, Seoul, Korea Tel: 822-710-9457 Fax: 822-2077-7327 E-mail: msp@sookmyung.ac.kr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3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2004년도 대한가정학회 제57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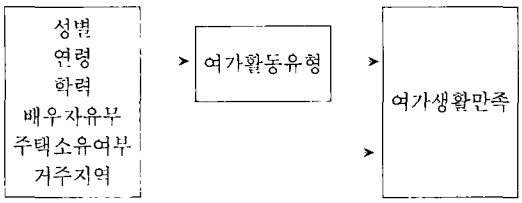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서 머지않아 2019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1).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년기의 연장은 생명의 연장이라는 긍정적 의미 외에 은퇴 후 더욱 연장된 여생을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여가사회(society of leisure)이다. 우리나라도 다음달 1일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18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말'을 맞이하게 된다(동아일보, 2004. 6. 27). 현대사회에서 여가선용의 문제는 비단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특히 현대 노년기의 여가생활은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다(박미석, 2002). 노년기는 자녀들의 출가, 사회경제적 활동으로부터 퇴직 및 배우자와 주변인들과의 사별 등으로 인해 역할 상실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사회·경제·가정적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는 젊었을 때의 틈을 낸 여가활동은 노동이나 의무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녀부양의 의무, 사회경제적 역할 및 책임 등으로터 은퇴한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자체가 곧 여가생활이다. 노인들은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국가경제발전 부흥시기의 역군세대로서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노동 및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원치 않는 계속되는 여가(full-time leisure)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노후생활 문제는 은퇴 이후 증가된 여가시간을 어떻게 올바르게 잘 사용하여 노후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 하는 여가선용(餘暇善用, good use of leisure)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퇴 후 장기간의 자유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수동적이고 일상적인 여가생활은 자칫 무위고(無爲苦)를 낳게 할 수 있으므로 여생동안의 여가계획과 여가선용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생활전략이다.

실제로 어떤 여가활동을 통해 어떻게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여가생활만족과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여가선용이냐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은 노인의 여가활동 추구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일치하고는 있으나 여가활동 자체보다는 그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여가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된다고 보고 있다. 여가생활만족이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 유도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Beard & Ragheb, 1980), 여가생활만족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Campbell, Convers, & Rodgers, 1979; 박미석, 2002; 한혜원, 2000; 홍성희, 1998).

즉 노년기의 삶의 질은 은퇴이후 여가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노후 여가생활만족을 저해하는 내적, 외적 원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들 스스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은 어떠하며, 여가생활만족의 요인을 파악해내는 것은 은퇴 후 여가선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여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고찰 결과, 순수하게 은퇴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여가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선용의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퇴 후 노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들의 여가활동유형, 여가생활만족과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점과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1. 은퇴 후 노인의 여가활동유형, 여가생활만족, 여가생활불만족이유는 어떠한가?

2. 은퇴 후 노인의 여가활동유형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은퇴 후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여가생활만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은퇴 후 노인의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의 중요성

은퇴 후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유용감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Janet McLean은 은퇴 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건강, 의미있는 활동, 필요한 존재되기, 재정적 안정성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요약하는 방정식(은퇴 후 성공적 노화 = f(건강, 의미있는 활동, 필요한 존재되기, 재정적 안정성))을 개발하였다(McGuire, Boyd & Tedrick, 1996). 또한 퇴직자와 예비퇴직자들을 연구한 Bickson & Goodchilds(1989)도 은퇴 후 성공적 노화를 위해 재정, 건강, 시간활용, 가족과 사회적응, 자기존중과 퇴직계획과정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러한 은퇴 후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각각 요소들에 여가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먼저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들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여가는 노인들의 통상적인 운동부족을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체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즉 평상시 여가생활을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가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Teague(1987)도 신체적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세심하게 계획된 신체활동프로그램은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막거나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의 활동 및 운동에 관한 문헌연구를 한 Goldberg & Hagberg(1990)에 의하면 확실하게 신체적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의 하나이며, 이것은 건강과 복지를 증대시켜 노년의 삶의 질을 고양하게 한다(나항진, 2002, 재인용).

한편 의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의미를 찾기 위해 여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경제·가정적으로 은퇴한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정체성을 창출하고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가를 활용한다. Haggard & Williams(1991)는 여가활동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또한 Csikszentmihalyi & Kleiber(1991)는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여가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 노인학교 등에서 자아성찰, 지적 유희, 탐험 등의 목적을 갖는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나항진, 2002, 재인용).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상호적인 과정으로,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사이의 교환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여가활동 중 대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남을 위해 일하고, 인정을 받고, 역동적이 되며,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얻으면서 자신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55세 이상의 사람들 중 대략 5명 중 1명이, 그리

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곳은 교회 등의 종교기관, 병원,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이며, 평균 일주일에 4.7시간 정도 봉사한다(U.S. 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 199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은 이제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실제 사회참여적인 자원봉사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반상회 등 지역 공동체 활동 등에서만 일주일 평균 30분 미만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석, 이유리, 2003).

한편 은퇴 후 성공적 노화의 마지막 요소인 재정적 안정은 여가생활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소득은 여가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여가자원으로 대부분의 노인은 은퇴로 인해 지속적인 수입원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여가비용 조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여가생활은 더욱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어 불만족한 노후생활이 되기 쉽다. 반면 일부 노인들은 컴퓨터, 제과제빵, 요리 등 각종 학습관련의 자기개발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개발하고 기술을 습득한다. 이러한 여가시간을 활용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소득원을 보장하기도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는 노인관련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저조한 편이며,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에서도 자기개발 여가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박미석, 이유리(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하루 여가시간의 활용에서 노인들의 자기개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사회적으로 노령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동시에 의무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상태와 여가활동의 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여가활동의 양적인 측면에서 199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의 자료를 2차 분석한 결과(박미석, 이유리, 2003),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무직인 노인의 하루 평균 여가생활시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가 노인들의 하루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가활동의 상태와 관련해서 취업여부에 따라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홍성희, 1998), 김애련, 한내창(1997)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 또는 무직의 노인보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취미활동, 관람·청취, 교양활동 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 증가된 여가시간이 반드시 다양한 여가활동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상의 은퇴 후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여가의 역할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의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가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노인들이 자신들의 여가를 얼마나 가치있고 의미있게 보내느냐가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남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노인들은 신체적, 자아실현적,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능력개발 등과 관련되는 여가활동을 통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유지, 재미있고 보람있는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전략을 얻을 수 있다. 즉 은퇴 후 노인의 여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증진시킬 수 있고 여가활동 후 만족할 수 있는 여가의 선용이다.

2. 관련변인 고찰

1) 성별

선행연구고찰결과, 여가활동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가족중심적 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 성역할 차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애련, 한내창(1997)에 의하면 남성들은 '교양활동', '취미활동', '관람 청취', 그리고 '어울려 놀기'를 즐기는 반면, 여성들은 '가족중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자노인은 종교활동에, 남자노인은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 여가활동정도에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결과(홍성희, 1998)도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만족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숙자(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김성연, 박미석(2000)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덕(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연령

연령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며(Gordon, Gaitz, & Scott, 1976), 특히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홍성희, 1998). 박미석, 이유리(2003)의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75세 미만 연령층의 노인들에 비해 사교오락활동과 TV 등 대중매체 이용, 단순휴식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은 다른 연령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련, 한내창(1997)의 연구에서는 60대는 '어울려 놀기'와 '부업' 활동을 많이 하고, 70대 이상 노년층은 여가적 '집안일'과 '단순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었다. 이상을 볼 때 연령이 증가하면 절대적인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적극적인 여가참여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은 여가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성연, 박미석, 2000; 이숙자, 2001), 한상덕(2002)의 연구에서는 60대보다 71 75세 집단의 여가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연, 박미석(2000)은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욕구수준의 조정으로 익숙해지고 적응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3) 학력

Havighurst(1974)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 체력관리, 클럽활동, 봉사활동, 독서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수면을 취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국내 선행연구결과에서도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이선미, 1991; 홍성희, 1998). 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 그리고 종교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공원이나 복덕방, 경로당에 가는 등의 소일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을 많이 한다. 또한 무학인 경우에 단순휴식시간이 가장 길고, 자기개발과 스포츠활동은 초대졸업 이상의 노인집단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더욱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석, 이유리, 2003).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학력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숙자(2001)와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는 낮았으며, 한상덕(2002)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미자(1997)의 연구에 의하면 고졸이상의 노인들이 그 이하의 학력 노인들보다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은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과(김성연, 박미석, 2000)도 있다.

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도 여가활동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배우자의 부재가 노인의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Larson, 1978). 이선미(1991)도 노부부 단독세대에서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면 생활내용이 크게 변화하게 되어 매우 다른 여

가활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양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여가적 '집안일'과 '종교'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련, 한내창, 1997).

한편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덕, 2002). 그러나 김성연, 박미석(2000)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는 여가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택소유 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다. 이는 활발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요구되므로,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소유는 여가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성희, 송정선, 1997).

마찬가지로 주택소유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혀 여가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숙자(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가활동의 경제적 자원이 되는 용돈수준과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용돈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일치하고 있다(김성연, 박미석, 2000; 정미자, 1997; 홍성희, 1998).

6) 거주지역

홍성희, 김성희(1997)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기타 다른 지역 거주노인보다 적극적 활동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따른 여가경험과 여가기회의 제약 및 역할수행과 관련된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기타도시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생활환경과 생활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홍성희, 1998).

거주지역이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홍성희(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역은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여가활동유형

여가생활만족은 개인의 여가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야기된다(박미석, 2002). Ragheb & Griffith (1982)는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면서,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 삶의 총체적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요소가 바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Iso-Ahola(1980)는 여가활동이 최적으로 각성될 때 여가생활만족은 최상이 되는데, 여가활동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여가생활만족은 최저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Ragheb & Griffith(1982)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생활만족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스포츠활동과 야외활동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여가생활만족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살핀 Kelly & Steinkamp(1987)의 연구에서는 여행, 문화행사 참여, 사회활동, 운동 등의 순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정 중심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ecy, Berg & Wright (1985)도 노인 여가활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적극적 활동이 노인의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역할상실, 고립, 격리 등에 영향을 주어, 결국 여가를 통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도 능동적 여가활동이 수동적 여가활동에 비하여 여가생활만족에 보다 크게 기여한다는데 일치하고 있는데,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관하여 연구한 원형중(1994)에 의하면 능동적이며 몰입의 성격을 지닌 질적인 여

가참여가 여가생활만족의 관건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영린, 이홍구(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스포츠활동, 관광행락 활동, 사교활동 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에서 2000년 7월 16일~25일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며, 이를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은퇴 후 노인이며, 자료는 최종적으로 14,673명을 통계분석에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유형은 통계청의 분류방법과 동일하게 감상 및 관람/TV시청/PC통신·인터넷 검색·컴퓨터 게임/승부놀이/창작적 취미활동/스포츠활동/여행/사교활동/가족공유활동/가사잡일/단순휴식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여가생활만족은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의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4〉에서 여가생활만족척도는 만족, 불만족을 측정하는 이항변수이므로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 중 여자노인이 약 67%로 남자노인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60~69세가 과반수로 평균연령은 70세이었다. 무학의 노인이 약 40%, 초등학교 졸업이 약 33%로 학력은 낮은 편이었다. 한편 독신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약 46%이었으며, 자가(自家)인 경우가 약 81%로 대체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경기지역,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의 6대 광역시, 그리고 그 외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의 8개의 도를 구분하여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서울, 경기지역 거주노인이 약 21%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673

변 인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	4,897	33.4
	여	9,776	66.6
연 령	60~69세	7,482	51.0
	70~79세	5,415	36.9
	80세 이상	1,776	12.1
학 력	무학	5,933	40.4
	초등졸	4,784	32.6
	중졸	1,437	9.8
	고졸	1,589	10.8
	초대졸이상	930	6.3
배우자 유무	유	7,938	54.1
	무	6,735	45.9
주택소유여부	자가소유	11,944	81.4
	비소유	2,729	18.6
거주지역	서울, 경기	3,023	20.6
	6대광역시	4,905	33.4
	그 외 지역	6,745	46.0

2.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경향

1) 여가활동유형

우리나라 노인은 은퇴 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2〉에 제시한 바

<표 2>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활동유형

N=14,673

여가활동유형	빈도(N)	백분율(%)
감상 및 관람	60	0.4
TV시청	4,011	27.3
PC통신 · 인터넷 검색 · 컴퓨터 게임	22	0.1
승부놀이	212	1.4
창작적 취미활동	93	0.6
스포츠활동	171	1.2
여행	617	4.2
사교활동	1,803	12.3
가족공유활동	1,092	7.4
가사잡일	2,631	17.9
단순휴식활동	3,961	27.0
전 체	14,673	100.0

와 같이 은퇴 후 노인들은 주로 TV시청과 낮잠 등과 같은 단순 휴식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보기 등을 포함한 가사잡일, 친구를 만나는 사교활동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여가생활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홍성희, 1998; 한상덕, 2002)과 일치한다.

은퇴 후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신체적인 스포츠활동(1.2%), 창작적 취미활동(0.6%) 등은 대부분의 노인이 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주요 여가도구인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여가활동은 가장 낮게 나타나(0.1%), 젊은 세대들과의 많은 여가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여가생활만족

한편 노인들의 은퇴 후 평상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만족

N=14,673

여가생활만족 여부	빈 도(N)	백분율(%)
만 족	6,741	45.9
불만족	7,932	54.1
전 체	14,673	100.0

즉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45.9%)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54.1%)이 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3) 여가생활불만족 이유

평소 여가생활에 불만족한다는 7,932명에 대해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표 4 참조),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약 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 또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약 3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개인외적인 원인으로 비용의 부족, 개인내적 문제로는 건강 및 체력이 부족해서, 교통편의 불편함 등으로 나타난(이숙자, 2001)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노인은 노화로 인해 여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수준이 저하되며, 은퇴로 인해 지속적인 수입원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여가비용의 조달에 제한을 받기 쉬워, 노인세대는 다른 세대들과 달리 개인적인 여가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윤정(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표 4>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불만족 이유

N=7,932

여가생활불만족 이유	빈도(N)	백분율(%)
경제적 부담 때문	3,484	43.9
시간이 부족하여	248	3.1
교통혼잡 및 교통수단 불편	321	4.0
여가시설부족	173	2.2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56	0.7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573	7.2
건강, 체력이 부족하여	3,040	38.3
기 타	37	0.5
전 체	7,932	100.0

3. 배경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의 배경 변인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χ^2 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5>

<표 5> 배경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N=14,673, 빈도(%)

배경변인	여가활동유형	감상 및 관람	TV시청	PC통신 등	승부놀이	창작적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	사교활동	가족공유 활동	가사잡일	단순휴식 활동	전체	χ^2
성별	남	40(.8)	1,401(28.6)	21(.4)	155(3.2)	42(.9)	126(2.6)	409(8.4)	611(12.5)	335(6.8)	483(9.9)	1,274(26.0)	4,897(100.0)	927.535***
	여	20(.2)	2,610(26.7)	1(.0)	57(.6)	51(.5)	45(.5)	208(2.1)	1,192(12.2)	757(7.7)	2,148(22.0)	2,687(27.5)	9,776(100.0)	
연령	60~69세	42(.6)	2,055(27.5)	20(.3)	109(1.5)	65(.9)	128(1.7)	468(6.3)	894(11.9)	602(8.0)	1,405(18.8)	1,694(22.6)	7,482(100.0)	446.721***
	70~79세	15(.3)	1,487(27.5)	2(.0)	89(1.6)	24(.4)	39(.7)	134(2.5)	729(13.5)	385(7.1)	950(17.5)	1,561(28.8)	5,415(100.0)	
	80세 이상	3(.2)	469(26.4)	0(.0)	14(.8)	4(.2)	4(.2)	15(.8)	180(10.1)	105(5.9)	276(15.5)	706(39.8)	1,776(100.0)	
학력	무학	4(.1)	1,572(26.5)	0(.0)	50(.8)	9(.2)	5(.1)	54(.9)	727(12.3)	392(6.6)	1,190(20.1)	1,930(32.5)	5,933(100.0)	1488.933***
	초등졸	11(.2)	1,334(27.9)	0(.0)	62(1.3)	22(.5)	35(.7)	163(3.4)	609(12.7)	357(7.5)	923(19.3)	1,268(26.5)	4,784(100.0)	
	중졸	7(.5)	407(28.3)	0(.0)	34(2.4)	12(.8)	37(2.6)	101(7.0)	173(12.0)	116(8.1)	234(16.3)	316(22.0)	1,437(100.0)	
	고졸	19(2.0)	443(27.9)	9(.6)	35(2.2)	27(2.8)	45(2.8)	171(10.8)	188(11.8)	136(8.6)	207(13.0)	309(19.4)	1,589(100.0)	
	초대졸이상	19(2.0)	255(27.4)	13(1.4)	31(3.3)	23(2.5)	49(5.3)	128(13.8)	106(11.4)	91(9.8)	77(8.3)	138(14.8)	930(100.0)	
배우자	유	51(.6)	2,236(28.2)	21(.3)	152(1.9)	67(.8)	147(1.9)	514(6.5)	908(11.4)	629(7.9)	1,320(16.6)	1,893(23.8)	7,938(100.0)	458.359***
	무	9(.1)	1,775(26.4)	1(.0)	60(.9)	26(.4)	24(.4)	103(1.5)	895(13.3)	463(6.9)	1,311(19.5)	2,068(30.7)	6,735(100.0)	
주택 소유	소유	55(.5)	3,238(27.1)	21(.2)	182(1.5)	80(.7)	154(1.3)	543(4.5)	1,459(12.2)	934(7.8)	2,125(17.8)	3,153(26.4)	11,944(100.0)	60.327***
	비소유	5(.2)	773(28.3)	1(.0)	30(1.1)	13(.5)	17(2.7)	74(2.7)	344(12.6)	158(5.8)	506(18.5)	808(29.6)	2,729(100.0)	
거주 지역	서울, 경기	18(.6)	833(27.6)	6(.2)	44(1.5)	23(.8)	57(1.9)	170(5.7)	299(9.9)	248(8.2)	583(19.3)	742(24.5)	3,023(100.0)	167.089***
	6대광역시	21(.4)	1,348(27.5)	10(.2)	68(1.4)	37(.8)	65(1.3)	263(5.4)	665(13.6)	378(7.7)	760(15.5)	1,290(26.3)	4,905(100.0)	
	그 외 지역	21(.3)	1,830(27.1)	6(.1)	100(1.5)	33(.5)	49(.7)	184(2.7)	839(12.4)	466(6.9)	1,288(19.1)	1,929(28.6)	6,745(100.0)	
전체		60(.4)	4,011(27.3)	22(.1)	212(1.4)	93(.6)	171(1.2)	617(4.2)	1,803(12.3)	1,092(7.4)	2,631(17.9)	3,961(27.0)	14,673(100.0)	

* p<.05 ** p<.01 *** p<.001

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27.535, p<.001).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약 54% 이상이 주로 TV시청과 낮잠 등의 단순휴식활동으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유형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노인은 TV시청(28.6%), 여자노인은 단순휴식활동(27.5%)이었다. 또한 남자노인은 여자노인보다 단순휴식활동(27.5%), 가사잡일(22.0%), 가족공유활동(7.7%)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에서 참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승부놀이(남자: 3.2%, 여자: 0.6%)와 스포츠활동(남자: 2.6%, 여자: 0.5%)에서 여자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반면 가사잡일과 관련된 활동의 참여비율에서 여자노인(22.0%)은 남자노인(9.9%)에 비해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김애련, 한내창, 1997)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과거부터 가사일을 여성들이 해왔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여자노인들은 평소 여가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가사노동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유형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χ^2=446.721, p<.001), 전체적으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TV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노인들은 TV시청(27.5%), 단순휴식(22.6%)의 순으로 분포한 반면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단순휴식(70대: 28.8%, 80대 이상: 39.8%), TV시청(70대: 27.5%, 80대 이상: 26.4%)의 순으로 참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점점 더 체력이 저하되면서 낮잠, 누워있기 등이 더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6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행활동에서, 70대는 사교활동에서, 80대 이상은 단순휴식에서 더 높은 참여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75세 미만 연령층의 노인들에 비해 사교활동과 TV시청, 단순휴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미석, 이유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의 증가는 신체적 활동 빈도를 낮추고, 정적인 여가활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학력에 따라서도 여가활동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488.933, p<.001). 전체적으로 모든 학력에서 TV시청에 높은 참여비율을 나타냈으나, 무학의 노인들은 여가활동유형 중 단순휴식활동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2.5%) 다른 집단에 비해 단순휴식활동과 가사잡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을 덜 받은 노인들은 여가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이선미(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반해 초대졸이상의 노인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포츠활동과(5.3%) 여행(13.8%)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인 스포츠 및 레져활동시간은 초대졸업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 박미석, 이유리(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은 사회경제적 지위, 여가정보 등과 관련되어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가활동유형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58.359, p<.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행의 참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6.5%),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사교활동(13.3%), 가사잡일(19.5%), 단순휴식활동(30.7%)의 참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사교활동과 단순휴식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 박미석, 이유리(2003)의 결과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애련, 한내창(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유무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크게 변화시켜 노인의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χ^2=60.327, p<.001),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여행(4.5%), 가족외식, 주말농장 이용 등의 가족공유활동(7.8%)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휴식활동의 참여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여부가 노인의 경제적 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가비용이 적은 단순휴식활동에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χ^2=167.089, p<.001), 전체적으로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평소 일과를 보내는 주요한 활동은 TV시청으로 나타났다(서울경기: 27.6%, 광역시: 27.5%, 그 외 지역: 27.1%). 그러나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스포츠활동은 높고, 사교활동과 단순휴식활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기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유형이 높게 나타난 홍성희, 김성희(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경제적·물리적·자연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개인적인 여가경험과 외적인 여가시설 등 서로 다른 여가자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배경 변인에 따른 여가생활만족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여가활동유형 등의 배경 변인에 따라 여가생활만족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χ^2 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성별(χ^2=88.479, p<.001), 연령(χ^2=275.120, p<.001), 학력(χ^2=277.958, p<.001), 배우자유무(χ^2=201.339, p<.001), 주택소유여부(χ^2=35.905, p<.001), 거주지역(χ^2=129.768, p<.001), 여가활동유형(χ^2=24.540, p<.01)에 따라 여가생활만족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라 여자노인은(48.7%) 남자노인보다(40.5%)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0대가 불만족하는 비율(6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은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비율(55.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의 노인집단이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5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은퇴 후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더 높은 상황에서 여성, 80대 이상 그리고 무학의 노인집단은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도가 낮거나 기대가 낮아 현재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59.4%) 없는 경우보다(47.7%) 여가생활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47.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보다(40.8%)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응답비율(50.9%)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여가생활만족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감상 및 관람활동, 단순휴식활동, TV시청을 하는 노인집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에 비해 여가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승부놀이와 창작적 취미활동을 하는 노인집단이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은 구체적으로 노인의 여가생활만족 여부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여가활동유형 변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여가활동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경우 여가생활에 만족해 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더 만족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욕구수준의 조정으로 익숙해지고 적응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여가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 김성연, 박미석(2000)의 연구결과를

〈표 6〉 배경 변인에 따른 여가생활만족

N=14,673, 빈도(%)

배경변인 \ 여가생활만족여부		만 족	불만족	전 체	χ^2
성 별	남	1,982(40.5)	2,915(59.5)	4,897(100.0)	88.479***
	여	4,759(48.7)	5,017(51.3)	9,776(100.0)	
연 령	60~69세	2,945(39.4)	4,537(60.6)	7,482(100.0)	275.120***
	70~79세	2,804(51.8)	2,611(48.2)	5,415(100.0)	
	80세 이상	992(55.9)	784(44.1)	1,776(100.0)	
학 력	무학	3,190(53.8)	2,743(46.2)	5,933(100.0)	277.958***
	초등졸	2,007(42.0)	2,777(58.0)	4,784(100.0)	
	중졸	523(36.4)	914(63.6)	1,437(100.0)	
	고졸	592(37.3)	997(62.7)	1,589(100.0)	
	초대졸이상	429(46.1)	501(53.9)	930(100.0)	
배우자	유	3,220(40.6)	4,718(59.4)	7,938(100.0)	201.339***
	무	3,521(52.3)	3,214(47.7)	6,735(100.0)	
주택소유	소유	5,628(47.1)	6,316(52.9)	11,944(100.0)	35.905***
	비소유	1,113(40.8)	1,616(59.2)	2,729(100.0)	
거주지역	서울, 경기	1,210(40.0)	1,813(60.0)	3,023(100.0)	129.768***
	6대광역시	2,097(42.8)	2,808(57.2)	4,905(100.0)	
	그 외 지역	3,434(50.9)	3,311(49.1)	6,745(100.0)	
여가활동 유형	감상 및 관람	22(36.7)	38(63.3)	60(100.0)	24.540**
	TV시청	1,796(44.8)	2,215(55.2)	4,011(100.0)	
	PC통신 등	11(50.0)	11(50.0)	22(100.0)	
	승부놀이	107(50.5)	105(49.5)	212(100.0)	
	창작적 취미활동	47(50.5)	46(49.5)	93(100.0)	
	스포츠활동	82(48.0)	89(52.0)	171(100.0)	
	여행	303(49.1)	314(50.9)	617(100.0)	
	사교활동	902(50.0)	901(50.0)	1,803(100.0)	
	가족공유활동	505(46.2)	587(53.8)	1,092(100.0)	
	가사잡일	1,194(45.4)	1,437(54.6)	2,631(100.0)	
	단순휴식활동	1,772(44.7)	2,189(55.3)	3,961(100.0)	
전 체		6,741(45.9)	7,932(54.1)	14,673(100.0)	

* p<.05 ** p<.01 *** p<.001

지지한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여가생활에 더 만족해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상덕(2002)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유한 경우,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에 비해 광역시 거주자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여가생활에 만족해 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택소유는 은퇴 후 노인이 자칫 취약할 수 있는 여가자원인 경제적 소득과 관련있는 변인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혀 여가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여가활동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단순휴식활동에 비해 승부놀이, 창작적 취미활동, 스포츠활동, 여

〈표 7〉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만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인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Wald 통계량
성별(기준: 남성)		.224***	.045	24.459
연 령		.033***	.003	150.409
학 력		.000	.016	.000
배우자유무(기준: 배우자 없음)		-.250***	.042	35.220
주택소유여부(기준: 주택소유하지 않음)		.260***	.045	34.032
거주지역 (기준: 서울경기지역)	광역시	.351***	.046	57.786
	그 외 지역	.097*	.048	4.099
여가활동유형 (기준: 단순휴식활동)	감상 및 관람	-.002	.274	.000
	TV 시청	.091	.046	3.836
	PC통신 등	.765	.431	3.150
	승부놀이	.450**	.145	9.707
	창작적 취미활동	.478*	.214	4.969
	스포츠활동	.543**	.160	11.495
	여행	.567***	.091	39.212
	사교활동	.286***	.058	24.119
	가족공유활동	.171*	.070	5.878
	가사잡일	.072	.052	1.901
상 수		-3.042	.222	187.808

* p<.05 ** p<.01 *** p<.001 -2 Log Likelihood = 19654.88 χ^2 = 589.43***

행, 사교활동, 가족공유활동을 하는 노인이 여가생활에 더 만족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휴식활동보다는 신체적이고 대인적인, 그리고 자기개발적인 여가활동유형을 하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들(원형중, 1994; 정영린, 이홍구, 1996)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의 양보다는 어떻게 그 여가시간을 보내느냐는 여가생활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현대 노인들은 은퇴 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고 자녀 부양의 의무, 사회적 역할 및 책임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더 많은 시간과 활동을 위한 여유, 여가를 누릴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적지 않은 노인들이 증대된 여가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노인들은 은퇴 후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을 통해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상의 연구필요성에 의해 은퇴 후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생활만족에 대한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후 노인들의 여가활동유형은 주로 TV시청과 단순휴식활동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건강, 체력의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여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수준이 저하되며, 은퇴로 인해 지속적인 수입원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여가비용의 조달에 제한을 받기 쉽다. 따라서 노인은 주요한 여가자원인 건강, 경제적 소득, 시간 중 건강과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는 노후 여가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불만족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은퇴 후 노인의 여가활동유형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60대 노인은 70대, 80대이상의 노인보다, 학력이 높은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주택을 소유한 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보다, 서울경기 지역 또는 광역시 거주 노인이 그 외 지역 거주 노인보다 스포츠활동, 여행, 가족공유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 후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여가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은 노인이, 무학의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서울경기지역 또는 광역시 거주보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단순휴식활동보다 승부놀이, 창작적 취미활동 등을 하는 노인이 여가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여가활동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서울경기지역 거주에 비해 광역시 거주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단순휴식활동에 비해 승부놀이, 창작적 취미활동, 스포츠활동, 여행, 사교활동, 가족공유활동을 하는 노인이 여가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은퇴노인은 무한한 자유시간에 비해 여가생활은 대체로 소극적이고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생활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은 창작적 취미활동, 스포츠활동, 여행 등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유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증가된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이상의 신체적인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공유활동의 참여가 여가생활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세대차를 극복해 모든 가족이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다른 가족원의 여가시간 증대가 노인 소외문제를 오히려 한층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 가려져 있는 공정하지 않은 가족관계나 소외된 가족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동아일보, 2004. 6. 28).

또한 여가프로그램의 내용은 은퇴 후 노인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에 따라 여가활동유형 참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는 일률적인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보다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소집단별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남자노인이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60대 노인들을 위해서는 옥외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여가체육 프로그램을, 학력이 높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학습형 여가프로그램을, 유배우 노인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부공동참여형의 프로그램을,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을 위해서는 근린 스포츠 센터와 연계한 노인대상의 각종 스포츠 교실 운영 그리고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참가비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여가프로그램에 앞서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은퇴준비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노년기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은퇴 후 노인의 경제력과 건강수준은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자원인 동시에 여가생활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의 여가복지정책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취약한 건강과 경제적 자원을 보강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요구도 조사를 기초로 여가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건강이 다소 약한 노인들도 할 것이 없어 집에 누워있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여가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가생활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학교, 노인대학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건강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주부 및 학생들의 여가도우미 자원봉사활동 연계를 통해 이들의 여가활동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은 노인이 쉽게 접근할 만큼 숫자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상대적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노인정에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노인정은 어떠한 여가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여가선용과 전혀 관계없이 동네 노인들이 모여 장기, 화투 등의 소일적인 오락활동이나 TV시청 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은퇴 후 노인들 중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특기와 재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인력 pool제도를 통해 이러한 여가관련 자원봉사 노인들이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지도를 한다면 더욱 쉽게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은퇴 후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적 자료제시를 위한 2차 분석연구로서 설명적 분석을 위한 특성변인들이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변인으로 제한되어 결과에 대한 해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이상의 결과에서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의 특성을 기초로 여가생활만족 요인들의 방향성에 대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여가활동의 질에 매우 관련성이 있는 월평균 가계소득이나 총자산 등의 노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자료가 원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아 분석결과에 제약점이 따른다. 통계청의 원자료에서 제공되지 못했던 경제적 소득수준, 개인의 건강수준, 기타 여가제약정도가 노인의 여가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후속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은퇴 후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관련변인을 파악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계청(2000)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자료로 하여 그 신뢰성과 대표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은퇴 노인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생활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연, 박미석(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김애련, 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나항진(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8, 131-163.

박미석(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5), 133-146.

박미석, 이유리(2003).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37-48.

원형중(1994). 여가활동 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90-104.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숙자(2001).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윤정(2003). 노인 여가의 기능과 여가자원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117-130.

정미자(1997). 한국노인의 여가실태와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린, 이홍구(1996).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5(3), 202-2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제12차 HRD 정책포럼.

한상덕(2002). 노인의 여가실태와 여가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633-649.

한혜원(2000). 노년기 여가참여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홍성희, 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53-267.

홍성희,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3, 25-44.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3.

Bickson, T. A. & Goodchilds, J. D. (1989). Expecting the retirement transition: Managerial and professional men before and after. In S. Spacapan and S. Oskamp(Eds.), *The social psychology of aging* (pp. 81-108). Newbury Park : Sage.

Campbell, A., Convers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reecy, R. F., Berg, W. E. & Wright, R. W. (1985). Loneness among the elderly: A causal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40(4)*, 487-493.

Gordon, C., Gaitz, C. M. & Scott, J. (1976).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In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science*, NY: D. Ban Nostrand.

Havighurst, R. G. (1974). *Aging in america: implication for education*. Waschington, D.C.,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Inc.

Iso-Ahola, S. E.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Kelly, J. R., & Steinkamp, M. W. (1987). Later-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190-200.

Larson, R.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McGuire, F. A. & Boyd, R. K. & Tedrick, R. T. (1996). *Leisure and aging*. Sagamore Publishing.

Ragheb, M. G., & Griffith, C. 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295-306.

Teague, M. L. (1982). *Leisure competency*: A goal for aging Americans in the 1980s.

U.S. 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Federal Council on Aging, U.S. Administration on Aging (1991). *Aging America*: Trends and human services.

(2004년 6월 30일 접수, 2004년 9월 20일 채택)